

## 직원모임서 ‘혁신사례 발표’ 눈에 띄네

— 우수 아이디어·제안 발굴...’ 이  
면지 활용 프로그램’ 첫 발표

6월 1일 충남도청(도지사 안희정) 월례 직원 모임에서는 이색 발표회가 열렸다. 도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 및 제안을 찾아 매월 직원모임에서 발표하는, ‘혁신사례 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된 것.

이날 발표는 도 혁신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전준호(52) 사무관이 나섰다.

자신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이면지 활용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선보였다. 전 사무관의 이면지 활용 프로그램은 프린터 내 깨끗한 복사용지와 이면지를 필요에 따라 손쉽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용지함 선택을 위해 필요하던 기존 다섯 단계 이상의 절차를 단 한 단계로 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프린터 내 두 개의 용지함에 깨끗한 복사용지와 이면지를 구분해 넣은 다음, 이면지를 이용한 인쇄를 할 경우, 그동안엔 컴퓨터에서 5번 이상 클릭하여 인쇄 설정 자체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인쇄 버튼 클릭과 동시에 이면지 인쇄 버튼이 나타나 단한번의 클릭으로도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정부 등의 실용화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지난 2005년 한국기술표준원으로부터 ‘훌륭한 제안’ 평가를 받는데 이어 2006년 특허 획득, 같은 해 공무원 중앙 제안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미국 특허를 출원 중이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계속적으로 협조하는 등 기술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전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모아뒀다 그냥 버리는 이면지가 아깝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며 “프로그램이 국내 컴퓨터에 본격 적용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혁신관리담당관실’을 새롭게 조직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계약서를 작성하는 ‘직무성과평가제’를 도입, 업무의 목표와 책임성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혁신사례로 발굴된 사업이나 제안에 대해 시상 및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제 내포신도시 성공이다!

- 충남도 전직원 내포 신도시에서  
성공다짐 대회

세종시 원안 사수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이어 내포신도시 성공여부가 충남도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대대적인 분위기 형성에 나서 주목된다.

충남도는 5월 28일(토) 내포신도시에서 전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성공기원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다짐대회에는 1500여명의 도 소속 공직자가 참여해 전 직원이 다 모이는 행사는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내포신도시가 한눈에 조망되는 ‘용봉산’ 등산에 이어 도청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도청(내포)신도시성공다짐결의, 실국별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민원 처리와 농번기 등을 고려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토요일에



대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행사는 내포신도시 성공을 위한 공직 내부 분위기 형성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충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5월 31일 안 지사 주재로 도 실국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이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토의하는 등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 대한민국 기업 1번지 “충남입니다”

- 서울에서 전국 기업 CEO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충남도는 5월 2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수도권권을 비롯한 전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 충남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화와 웅진, 보령제약 등 유망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환영사와 유병기 도의회 의장의 축사, 기업유치 시책 설명, 성공사례 발표, 시·군별 투자상담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도는 16개 시·군의 특성화 전략 산업단지 인프라,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항만, 211만명의 소비시장 및 18만명의 숙련된 인적자원 등 기업 입지에 유리한 충남의 환경을 소



개했다.

또 서북권 디스플레이(천안)와 자동차(아산, 서산), 철강(당진), 석유화학(서산) 등 충남의 4대 핵심 산업과 생태계 여건,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륙권 내포신도시(홍성, 예산, 청양)와 세종시(공주, 계룡, 연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잇는 IT, BT, 농축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서해안권(태안, 보령, 서천) 해양 체험·관광산업과 연계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서남부권(금산, 논산, 부여) 첨단 생명산업 산업단지 육성 현황 등 기업 맞춤형 인프라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천안으로 기업을 이전한 신화인터텍 김동욱 상무가 기업 이전 성공사례를 발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민선5기 출범 이후에는 583개 기업, 2조5천억원을 유치해 1만7천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다”며 “이는 충남도가 저렴한 땅과 수도권 인접성, 풍부한 전

문 인적자원, 맞춤형 기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 ‘셋째아 무상보육’ 7월 전면시행

— 다자녀 가정 보육료 절감 ‘저출산 시대’ 대비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셋째아 이상 아동은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 19만7천원 ▲4세 이상 17만7천원을 매달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유아학비는 도 교육청이 60%를 부담한다.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은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보육료 35억 5천만원, 유아학비 10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에 따라 도교

육청과 협의, 공동추진이 성사되게 됐다.

안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5세아 무상보육'을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기로 하면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가 담긴 정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 청의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등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은 6월 13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도권 규제의 핵심 정책인 공장 총량제와 대기업 입지규제 시책이 유명무실화 된 상황속에 충청권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에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3개 시·도 연구원장,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 유한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연구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규



제 정책은 단순히 기업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에 따른 심각한 집적의 불경제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지역경제의 피해, 그리고 수도권의 각종 주택·교통·교육문제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외부 대기업을 지역발전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균형발전”, 충발연 이관률 박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대응전략”,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MB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충청권의 대응과제”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중부대 강현수 교수, 대전발전연구원 김홍태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상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한남대 정순오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채성주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충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 충남농어업 6차산업화 개소 및 기념세미나 개최

충남도 농림수산 자원을 활용한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업 활성화를 지원할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센터장 유학열)가 6월 9일 오후 2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설치되는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이하 ‘6차산업화센터’)는 농축수산업이라는 1차 산업과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 생산의 2차 산업, 그리고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상품개발 등 각종 서비스 창출의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을 관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차산업화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충남농어업의 생산·유통·판매·서비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연구, 그리고 교육·홍보·네트워킹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舊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해 오던 ‘광천 토굴새우젓 명품화사업’도 ‘6차산업화센터’에서 승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학열 센터장(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은 “국내 농어업의 6차산업화가 아직까지 생소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6차산업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가 6차산업화 DB구축,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과 함께 열리는 기념세미나에서는 충남대학교 권용대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연구위원의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추진방향”, 유학열 센터장의 “일본의 6차산업화 및 농상공연대 정책 동향”, 예산사과와인주식회사의 정제민 공장장의 “농어업 6차산업화 선진사례” 등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남 농어업의 성공적인 6차산업화 추진을 논의하는 토론시간도 가졌다.

## 충남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한데 뭉쳤다

—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합동 워크숍 개최

충남 지역순환경제의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합동 워크숍이 6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렸다.

지역재단(이사장 정영일)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송두범)가 주관한 이번 “충남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관계자 합동워크숍”은 2010년과 2011년에 선정된 충남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40여개 업체와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70명이 참여하여 상호 협력과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과 사업체로서의 자립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남형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의 상호 홍보 및 구매, 공동마케팅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은 일반적인 강의 형태가 아닌 브레인스토밍과 분과별 토론 등 ‘참여자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등 상호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행사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 충청남도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출범

충청남도는 5월 25일 영상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하 갈등관리심의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갈등관리심의위는 향후 충청도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사업자 및 지역주민간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자치행정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최소화하고자 갈등관리 종합시책, 지자체 및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등 포괄적 심의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갈등관리심의위는 임기 2년의 위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재묵 교수(충남대)가, 부위원장에는 최병학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선출됐으며,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협력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갈등관리심의위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충남발전연구원과 긴밀히 연계·협력하면서, 특히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을 활성화시켜 갈등의 해법찾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어서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에서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운영실적 및 금년도 사업운영계획, 갈등영향분석 예비조사결과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갈등현안 목록 18건

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현장 실무 적용을 위한 매뉴얼작성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등 갈등관리심의위 출범에 맞춰 충남의 갈등관리 역량강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 충남발전연구, 청양꽃피마 을 찾아 농촌봉사활동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촌을 돕기 위해 5월 20일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충남발연 임직원 70명은 청양 화산리 꽃피마을에서 모내기과 고추심기, 그리고 밤나무 손질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충남발연 박진도 원장은 “비록 짧은 농활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연구원도 농촌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애정을 가져야 더 나은 연구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꽃피마을과의 교류협력 이후 두 번째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충남발전연구원은 이곳 특산물인 맥문동 직거래는 물론, 마을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2011년도 ‘지역인재육 성사업’ 및 ‘다모아 평 생교육정보망 사업’ 공 모선정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2011년도 지역인재육성사업 공모사업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당 3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총 25개 사업을 선정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충남은 이번 공모에 제출한 3개 사업 모두 선정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선정된 사업은 ‘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백삼제조 전문 인력 양성사업’, ‘지역 은퇴자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한자교육 인력양성사업’, ‘백제문화단지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관광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총 91백만원의 국비지원에 100% 대응자금을 합쳐 총사업비 182백만 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차원의 우수인재의 육성과 배분, 활용을 위한 우수 사업으로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공모를 실시했던 ‘충남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사업’의 경우 수도권권을 포함, 전국에서 2개 지역을 선발하였다. 이에 충청남도가 1위, 부산광역시가 2위로 선정, 국비 104백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도비 20백만 원을 포함, 총 124백만 원의 예산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식·정보기반 구축과 관련한 핵심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2011년도 제1차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의장 도지사)가 4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충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5개년)을 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이 보고하였다.

본 기본계획에는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수립배경, 평생교육에 대한 충남의 여건진단, 도민 요구조사결과, SWOT분석 및 전략수립 등을 통해 향후 5년간(2011~ 2015) 충남의 평생교

육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시·도지사의 책무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남교육청과 대학 및 유관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총 6개 영역 21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앞으로 이 기본계획은 충청남도의 평생교육시스템이 효율적, 협력적으로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